KiRi 리포트 2017.9.18.
포커스

중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12%로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반려동물 수는 소득증가와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음
- 2016년 중국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는 GDP의 0.16% 수준으로 우리나라(2015년 기준 0.11%)보다 높은 수준임

■ 중국 반려동물 의료보험은 2013년부터 판매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식별의 어려움, 의료비 비표준화,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로 부진함
- 2005년 최초로 반려동물 책임보험이 주계약으로 출시되었으며,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및 종합보험은 2013년 이후부터 출시되고 있음
- 아직까지 중국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반려동물 식별의 어려움, 의료비 비표준화, 낮은 인지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 관련 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온라인채널을 활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회사와 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는 사례도 있음
- 중국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의 인지도 확대와 가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과도기에 실행할 수 있는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보험 수요는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소비자의 니즈 충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중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12%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반려동물 수는 소득증가와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음

- 2016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국인 수는 1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
  - 중국의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 비중은 우리나라(30.9%) 및 미국(65%), 영국(47%), 독일(38%), 일본(2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2)]
-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2008년 3,000만 마리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2.5억 마리[3)]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각각 8,500만 마리, 5,000만 마리 수준으로 추정됨[4)]
  - 중국 반려동물 수의 급증은 주로 중국인의 국민소득 증가, 1~2인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5)]

■ 2016년 중국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는 1,220억 위안(약 185억 달러[6)])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GDP의 0.16%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임[7)]

- 반려동물 거래, 식품, 용품, 약품, 서비스 시장이 반려동물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산업이 단순한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서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
- 2016년 반려동물 의료산업은 약 227억 위안으로 전체 반려동물산업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830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GDP규모가 11조 8천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GDP의 0.16%를 차지하여 2015년 기준 0.11%로 나타난 우리나라보다 높음
  - 미국(0.34%), 일본(0.28%)보다는 낮고 영국(0.15%), 독일(0.12%) 수준임

1) 速途研究院(2017. 2), "2016年宠物行业市场规模1225.3亿元"
2) 보험연구원(2017. 8),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여기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도시가정에서 양육되는 반려동물을 한함
4) 中商产业研究院(2017. 7), "中国宠物市场分析报告: 2017年宠物数量将达2.5亿"
5) 搜狐网(2017. 6), "宠物行业深度研究分析报告"
6) 2017년 8월 29일 기준 위안화 환율 0.15달러 적용
7) 有宠研究院(2017. 1), "2016年度中国宠物行业白皮书"

■ 반려동물산업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보험도 출시되고 있으나 가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험회사 스스로의 시장 활성화 노력이 진행 중임

- 중국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통계수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지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8)]
- 그러나 최근 일부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반려동물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중국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현황과 보험회사들의 활성화 노력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중국 반려동물보험 현황

■ 중국에서 반려동물보험이 주계약으로 출시된 것은 2005년 중국태평양손해보험사의 반려동물 책임보험이 최초임

- 2004년 중국화태손해보험사는 제3자책임을 담보하는 계약을 가정재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출시한 바 있음
- 2005년 중국태평양손해보험사는 주계약으로 반려동물 책임보험을 출시하였으며 동 보험도 제3자 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임
- 2016년 말 기준 전체 8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반려동물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는 16개이며, 주계약 상품이 15개, 특약 상품이 16개로 나타남[9)]

■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및 종합보험은 2013년 이후부터 출시되고 있음

- API손해보험사는 2013년 6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종합보험을 출시하였으며 동 보험은 제3자 책임보험 및 의료보험을 포함하며 분실책임도 담보함
  - 중국평안손해보험사도 2014년 9월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종합보험을 출시함

8) 中国太平洋保险官网 보도자료(2016. 8), "宠物保险"
9)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손해보험상품 조회(http://www.circ.gov.cn/tabid/6758/Default.aspx)

- 2014년 9월 중국인민재산손해보험사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만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하였고, 이후 중국평안손해보험사가 두 가지 종류의 반려동물의료보험을 출시함
- 현재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중국 손해보험회사는 4개에 불과하며, 반려동물 의료보험은 4개, 반려동물 종합보험은 2개가 있음
  - 중국평안손해보험사는 세 가지 종류의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판매함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가입단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특징이 있으며, 6~7세까지 보장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9~12세의 고령까지 보장을 제공함

- 손해율 관리를 위하여 보장금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회사의 경우 의료비용 외에 반려견 분실 시 광고비도 보장함

〈표 1〉 주요 중국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 특징 비교

보험회사	API손해보험회사	중국인민재산손해보험회사	중국평안손해보험회사
상품종류	반려동물종합보험	반려동물의료보험	반려동물의료보험
보장범위	116종 질병	130종 질병	38~116종 질병
신체검사	보험료 납입 후 신체검사 실시, 신체검사 결과 합격 시 계약 발효		
반려묘 나이	만 8주~11세	만 18주~12세	만 8주~11세
반려견 나이	만 8주~9세	만 18주~12세	만 8주~9세
보장기간	1년		
보장금액한도	3만 위안	5천~5만 위안	1만~2만 위안
회당 보험금 지급 한도	1만 위안	2천 위안	보장금액한도의 90%
자기부담금	500위안 및 의료비의 20% 중 금액이 높은 것	300위안 및 의료비의 30% 중 금액이 높은 것	200위안 및 의료비의 10% 중 금액이 높은 것
백신 접종	필요	필요	필요
비고	분실 시 광고비 지급	분실 시 광고비 지급	없음
보험료	1,980위안	845~2,318위안	380~1,080위안

주: API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반려동물종합보험은 의료보험 및 책임보험을 포함하지만 여기서 의료보장 내용만을 소개함
자료: 각 보험회사 상품소개 및 기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됨

- 사례로 수집한 3개 반려동물 의료보험 중 가장 높은 보험료는 연간 약 40만 원(2,318위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50~100만 원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은 1만 원 내외(20~100위안)의 저렴한 보험료로 반려견이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함

〈표 2〉 주요 중국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 특징 비교

보험회사	중국인민재산손해보험회사	화안손해보험회사	중국평안손해보험회사
상품종류	반려동물책임보험	반려견책임보험	반려동물책임보험
보장범위	제3자(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재산손실		
보장금액한도	10만 위안	10만 위안	5천 위안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 한도	5만 위안	2천 위안	없음
면책 보험금	없음	50위안	없음
소송비용	포함	포함	포함
반려동물 등록증	필요	필요	필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	필요	불필요
반려동물 종류 제한	없음	있음	있음
백신 접종 비용	포함	포함	포함
보험료	42위안	100위안	20위안

자료: 각 보험회사 상품소개 및 기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됨

■ 한편 보험회사가 아닌 반려견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공제상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반려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신회사는 2016년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저강성의 주요 도시에서 반려견 헬스케어플랜인 "충신보"("宠信宝")를 판매함[10)]
  -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위치한 충신회사는 2011년 반려견 양육 및 훈련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반려견 식품 판매, 2015년 동물병원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함
- "충신보"는 충신회사의 모바일 앱 회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반려견 헬스케어플랜"에 가입한 반려견은 보장하는 질병(〈표 3〉 참조)에 한하여 충신회사의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음
- 다만 "충신보"가 보험상품이 아니고 가입자가 충신회사의 회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많지 않음

10) 猎云网(2016. 8), "宠信: 从 "宠物医疗保险" 切入的宠物健康管理平台"

〈표 3〉 충신회사의 "반려견 헬스케어플랜"

구분	질병 명칭	
보장범위	일반질병	감기, 발열 등
	호흡질병	천식, 기관지염, 편도염 등
	전염병	췌장염, 전염성 간염 등
	피부병	진드기, 탈모로 인한 피부병 등
	소화질병	구토, 설사, 장염 등
가격	800위안/년	

자료: 충신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아직까지 중국의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반려동물 식별의 어려움, 의료비의 비표준화, 낮은 인지도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비율이 낮으며, 반려동물 등록 시 찍은 사진만으로는 반려동물을 식별하기 어려움
  - 중국에서 반려견 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반려견 등록제가 주요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등록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임[11]
- 또한 동물에 대한 의료수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상이함[12]
- 현재 소수의 손해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동물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임[13]

3. 중국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노력

■ 중국 손해보험사회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11) 중국 베이징시의 경우, 2013년 개정된 "베이징 반려견 등록 관리 규정"에 따르면 반려견 첫 등록 시 등록비용은 1,000위안이고 이후 매년 500위안의 유지비용을 납입해야 됨. 또한 반려견 미등록 시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12) 广州日报(2017. 7), "宠物医院乱象：宠物看病比人贵 花千元不给病历"

13) 国际金融报(2015. 5), "宠物热,保险冷"

- 2016년 8월 중국평안손해보험사가 출시한 반려동물 의료보험인 "충애보"("宠爱宝")는 반려견 서비스전문회사인 충애보("宠爱堡")와 함께 개발한 보험상품임
  - 충애보("宠爱堡")는 순종견 인증 및 반려견 스포츠 경기 주최, 반려견 거래 기업 등급 평가 및 반려견 신분식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험소비자 확보에 유리함
- 2017년 4월 중국평안손해보험사가 출시한 반려동물 의료보험인 "충e보"("宠e宝")는 중국 1위 프랜차이즈 동물병원인 뤼파이충우("瑞派宠物")와 함께 출시한 보험상품임
  - 뤼파이충우는 중국에서 200여개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반려동물의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고 있음

- 중국인민재산손해보험사가 판매한 반려동물 의료보험인 "충러보"는 중국목축업협회가 개발한 반려동물 식별칩 기술을 활용함
  - 반려동물 양육자는 먼저 "충러보"의 SNS 계정에 반려동물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입금한 후, 지정 동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중국목축업협회가 개발한 식별칩을 부착해야 함
- 중국평안손해보험사가 출시한 반려동물 의려보험인 "충애보"는 협력회사인 "충애보"가 개발한 반려견 식별칩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반려견 양육자는 먼저 "충애보" 식별 칩을 반려견에 이식한 후 "충애보"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보험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결제해야 함

또한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의 인지도 확대와 가입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음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 중 35세 이하,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이들의 인터넷 이용도가 높으므로[14] 온라인채널이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짐
- 대다수 중국의 보험회사 및 반려동물서비스 전문회사는 모바일 앱이나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반려동물보험 판매에 적극 활용함

14) 养龟人(2016. 11), "中国宠物主市场 "大数据" 分析"

4. 시사점

중국의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보험 시장 현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노력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우리나라 및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관련 산업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큼
-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보험의 역사가 짧고 가입률도 낮은 상황이나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 역사가 오래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높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국 반려동물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판매되며 우리나라에 비해 보장 나이가 길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분실보장도 제공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상품이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음

- 중국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은 1년 갱신형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며, 9~12세까지 고령보장을 제공하고 반려견 분실 시 광고비 등 우리나라 상품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보장도 제공함
- 우리나라는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피해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책임보험이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이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중국의 보험회사는 불리한 환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등록 미비, 의료비 비표준화 등 반려동물보험 판매에 불리한 환경요인이 존재함
- 그러나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 관련 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식별칩 이식 등을 통해 반려동물 식별문제를 해소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손해율 관리를 위해 전문 판매채널 위주의 판매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한 가입 방식으로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함

■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과도기에 실행할 수 있는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며, 반려동물 등록에 따른 데이터의 집적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또한 의료비 표준화 논의는 수의업계와 반려동물 양육인, 보험회사,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세부적인 이슈해결은 시간이 필요함
-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수요는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소비자의 니즈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KiRi